

하나된 성남,
치민이 시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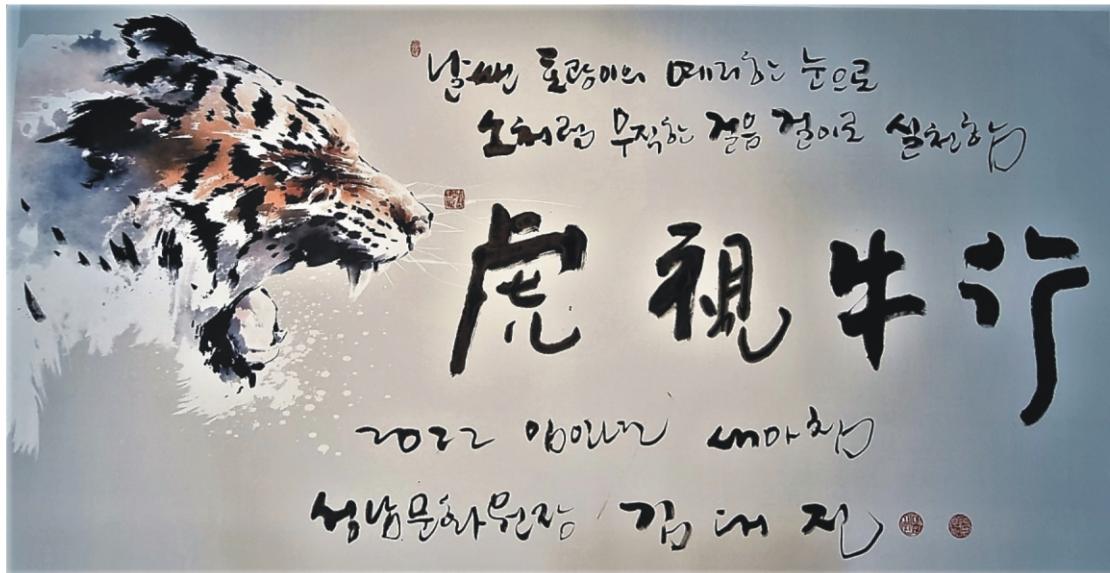
Seongnam Culture

성남문화

2021. 12 하반기 vol.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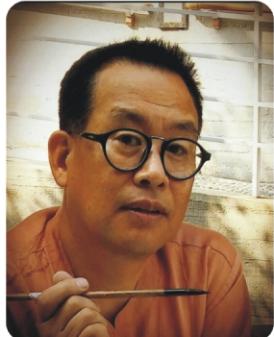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호시우행 (虎視牛行)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



서예가 유명현 강사

- 전국서예대전 초대작가
- 글꽃 캘리그라피 대표
- 성남문화원·문화의집 강사

Contents

1. 표지
2. 목차 및 작품
3. 2022 신년사
4. 문화원 사업
 - * 2022 새해 천제봉행 온라인 촬영
 - * 성남문화원·(재)성남이로운재단 업무협약식
 - * 제6회 둔촌문화제 및 제16회 둔촌 중국백일장
 - * 제26회 학술회의 / 성남문화연구 28호 발간
 - * 성남학야카데미 /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의사단(義死團) 조사보고서 발간
 - * 단기4354년 개천절 및 제26회 단군제·도당굿
 - *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이모술 집터 다지는 소리'
 - * 제24회 강정일당상 시상식
 - * 제30회 성남사랑글짓기 시상식
 - * 제21회 송산백일장 시상식
13. 공모사업
 -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 성남〉
 -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21 서가예찬 - 강정일당 추모 음원 '원운'〉
 -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손으로 고는 공예 / 동아리 온라인 공연〉
 - * 경기문화재단 예술동호회 연계활동 지원사업
〈기록하는 나의 예술〉
15.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수상
 - * 2021 이모술 집터 다지는 소리, 성남 오리뜰농악
16. 문화원 이모저모(문화원 소식, 임직원 주요 활동)
19. 성남문화의집 이색강좌
20. 사진으로 보는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
에서 관람하세요



발행일 2021. 12. 30 발행인 김대진 편집인 김정진 김미경 김연정 심기환 발행처 성남문화원
주소 133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전화 031)756-1082, 1028 팩스 031)756-1056
홈페이지 www.seongnamculture.or.kr



虎視牛行으로 행복한 새해 (호시우행)

김 대 진
성남문화원장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희망의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날, 저희 성남문화원은 시민 모두의 안녕과 우리 성남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봉행(奉行)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명산대천(名山大川)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국태민안을 축원합니다.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띠 해입니다. 호랑이는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민속에서는 사람과 매우 친근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호랑이와 곶감', '효자호랑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의리를 아는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들도 호랑이의 눈빛으로 주변을 지혜롭게 잘 살피는 한편 소처럼 듬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굳센 기상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한해에는 재물의 풍요와 심신의 평안함,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성남시 발전, 시민가정의 행복과 건강기원
**2022 임인년(壬寅年)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
 온라인 개최**



성남문화원은 매년 새해 첫날 판교마당바위에서 개최해 오던 '새해 천제봉행(天祭奉行)' 행사를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취소하고, 12월 20일(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남문화원 강당에서 촬영, 2022년 임인년(壬寅年) 1월 1일(토) 온라인 유튜브 성남문화원으로 방영했다.

김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날 촬영한 '천제봉행'은 새해를 맞아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남시립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진성수)의 대고 퍼포먼스 '천년의 북소리'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천제봉행(天祭奉行)은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집례로 좌집사 한동열 성남문화해설사회장, 우집사 이상균, 번시관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장, 영신관 조남두 성남학연구소장, 진찬관 김진수 광산김씨 대종회 이사, 초현관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축관 권선출 성남문화원 특별회원, 아현관 정재영 판교 낙생농협 조합장, 종현관 이수영 성남문화원 자문위원장, 송신관 방영기 성남문화원 문화학교 교장이 참여했다.

이번 영상에는 성남시 소개 영상, '판교마당바위'에 대한 역사와 천제봉행의 의미와 연혁,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은수미 성남시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의 신년사와 2022년 사자성어 휘호 퍼포먼스 '글꽃 캘리그라피팀' 유명현, 황금희, 함미영, 신년 축시에 연극배우 '이주희 성남연극협회장'이 이해정 시인의 '절망을 말할 때가 아니다.' 낭송, 경기소리사랑회의 '선녀춤', 벨칸토콰이어의 '동방의 나라', 타악연희단 소리율의 새해맞이 '길놀이'로 신명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성남문화원·(재)성남이로운재단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과 (재)성남이로운재단(이사장 최병주)은 10월 29일(금) 성남문화원에서 성남시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성남문화원 김대진 원장, 정재영 선임 부원장(판교낙생농협 조합장), 김정진 사무국장,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재)성남이로운재단 최병주 이사장, 윤석인 상임이사, 이용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성남문화원과 (재)성남이로운재단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성남지역의 문화발전으로 취약계층의 문화적 삶의 향유 증대와 지역 내 기관 간 융합·상생으로 성남시 공익 활동 추진에 따른 발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공유 사업 활동을 공동 추진 ▲성남시 각 동의 유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 등 사회공헌 및 지역 공익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현재 관내 국책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가천대학교,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청소년 재단, 농협성남시지부 등 10개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성남문화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제6회 둔촌문화제

참배·현화식과 시(詩)·무(舞)·악(樂)의 향연으로 개최

성남시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충절, 선비정신을 기리는 '제6회 둔촌문화제'가 11월 19일(금) 오후1시 이집 선생이 영면하고 있는 둔촌사당 추모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을 초청, 공연을 녹화촬영해서 11월 30일(화)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로 송출했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광주이씨대종회가 후원하는 제6회 둔촌문화제는 식전공연으로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둔촌선생 납시오' 길놀이로 문화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추모재는 성남문화원장, 광주이씨대종회 도유사 및 임원, 하대원동시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내빈들이 참배와 현화식이 진행됐으며, 시(詩)·무(舞)·악(樂)의 향연 첫 순서로 둔촌선생이 자손을 위해 남긴 정훈(庭訓)을 방영기 명창의 시창과 무용 정미래, 대금 김진욱의 공연과 유명현, 함미영 서예가의 휘호로 시작됐다.

공연에서는 둔촌 선생을 추모하는 성남시립합창단의 <큰 기침 소리>를 합창, <둔촌백일장 입상작> 시낭송에는 하대원동 안광림, 김정희 시의원, 이삼영 하대원동장, 오복희 하대원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무대에서 낭송했다. 이어서 춤자이 예술단의 <태평성대> 무용, 성남시립국악단의 <대고 퍼포먼스>,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의 '둔촌 이집 선생과 겹은콩' 이야기, 아주희 성남연극협회 회장의 <둔촌 선생에게 드리다>, <둔촌의 아들 지직의 급제를 하례하다>를 낭송, (사)가야금산조보존연구회의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연주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세대 소리꾼 나나니의 <서도 민요>, 이향우경기민요단의 <액맥이 타령>을 끝으로 제6회 둔촌문화제의 막을 내렸다.

이날 김대진 원장은 "성남문화원은 둔촌선생의 선배정신을 숭모하고 널리 선양하기 위해 둔촌청소년백일장과 둔촌한시(漢詩)백일장, 둔촌이야기자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왔고, 특히 성남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에서 16년간 '둔촌중국백일장과 한·중 시(詩)낭송' 행사를 개최하며 조선족 사회에서 한글을 지속적으로 보급 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제 둔촌문화제 행사를 통해 우리는 둔촌 선생을 우리의 큰 스승으로 기리면서 선생이 남긴 효행심과 선비정신을 널리 선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6회 둔촌 중국백일장

성남시 국제자매도시 중국 심양시 5개 학교에서 진행

'제16회 둔촌 중국백일장'이 11월 12일(금) 심양시 5개 분회장에서 동시에 막을 열었다. 소학조, 초중조, 고중조, 교원조 총 5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 국제자매도시 체결 제23주년 기념으로 올해로 열여섯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불가해 심양시 조선족소학교 참가자들을 지역별로 심양시조선족 제1중학교, 심양시조선족 제2중학교, 심양시 조선족 제3중학교, 심양시 혼남구 조선족학교, 심양시조선족 제6중학교 등 5개 분회장으로 분산시켜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마다 한차례씩 성황리에 펼쳐지던 연례행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되는 아쉬움을 고려하여 심양시 교육연구원은 수차례 행사 방안을 검토하여 5개 학교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으로 진행했다.

매년 시대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글짓기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온 둔촌 중국백일장은 올해 〈언덕길〉, 〈거울〉, 〈아픈 사랑〉, 〈잊혀진 계절〉, 〈덜렁쇠 아빠〉, 〈행복한 나의 집〉 등 여섯가지 제목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소학조 장원상은 화평구서탑조선족중심소학교 김가림 학생의 〈잊혀진 계절〉과 소가툰구조선족소학교 류은서 학생의 〈아픈 사랑〉이, 초중조 장원상은 조선족3중학교 최혜진 학생과 조선족2중학교 계은경 학생의 〈아픈 사랑〉이, 고중조 장원상은 심양시조선족제1중학교 허은지 학생의 〈잊혀진 계절〉, 김민 학생의 〈언덕길〉, 교원조 장원상은 화평구서탑조선족학교 리미자 교원의 〈거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에서 "꾸밈새 없는 진솔한 감정표현, 생동한 언어구사, 흥미있는 구성, 깊이 있는 미학적사색의 표출 등 창작상의 특점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글쓰기를 통해 습작기량은 물론, 인격적으로도 한 차원 크게 성숙되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동시에 글의 구성이 허술하거나 창의성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이야기수준에 머무르거나, 순통한 언어구사에 비해 주제가 뚜렷하지 못한 아쉬움도 밝혔다.

또한 대담히 세계 속의 우리의 삶을 폭넓게 다루어 보았으면 하는 희망을 말했다.

올해 행사는 심양시교육연구원과 한국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가 주관했으며 한국 광주 이씨 대종회, 한국 성남시가 후원했다.



제26회 학술회의 개최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는 11월 1일(월) 성남문화원에서 제26회 학술회의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영상촬영 후, 성남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방영했다.

제26회 학술회의는 광주대단지 건설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추진됨으로써 성남 본 도심 지역의 문화재가 모두 파괴되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을 점검해 보고, 도시발전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마련됐다. 또한 미래의 우리 성남시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논의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선임부소장 백남욱 교수의 기조발표 <광주대단지의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에 이어, 동서울대 서승갑 교수의 <광주대단지(성남) 무형문화유산으로 본 성남 정체성>, 성남학연구소 윤종준 상임위원의 <성남시 도시발전 과정의 문화유산 보호 실태와 과제>, 농림식품부 홍대한 학예연구관이 <광주대단지 건설 이후 문화재 현황과 활용방안 연구>를 발표한 후, 성남학연구소 조남두 소장, 문수진 신구대 명예교수, 성남학연구소 서철수 위원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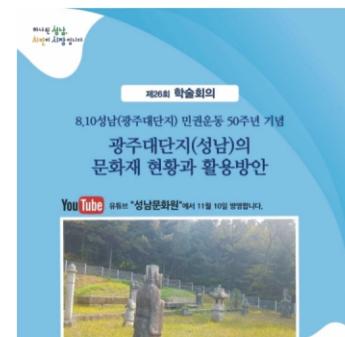
김대진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광주대단지 이후로 성남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50년의 짧은 기간에 명품도시를 만들어 온 성남시민들의 저력을 알게 되고, 미래의 성남시가 도시공간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화연구 제28호〉 발간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가 성남시의 태동이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남문화연구』 제28호를 발간했다.

제28호에는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인간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광주대단지 사건 전개과정' 자료와 현시 '성남이여, 행복의 땅이여!', 최명숙 연구위원의 '이문열의『변경』에 나타난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조남두 연구소장(신구대학교 명예교수)의 '성남시립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연구', 서철수 연구위원(前 신구대학교 교수 · 한국지적연구소장)의 '쇠뿔에 담은 화각공예의 전수', 정태열 연구위원의 '성남시 지정문화재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김주홍 연구위원(문화재청 사적분과 전문위원)의 '병자호란 시 근왕병의 왕실 구원 시도와 사회상', 성기용 연구위원(동서울대학교 부교수)의 '성남시 교육시설의 범죄예방 환경 현황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2021. 11. 1 (월) 오후 2시~
성남문화원 3층 전시실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성남학연구소 후원 : 성남시

8.10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호

城南文化研究

제 28호 · 2021



〈8.10 성남(광주대단지) 민권운동 50주년〉 ‘2021 하반기 성남학아카데미’ 성료

성남학연구의 총본산인 성남문화원 특색사업인 '2021 성남학아카데미'가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성남의 정체성 확보와 재난극복을 주제로 9월 8일(수) 오전10시 하반기 첫 수업이 성남문화원 5강의실에서 개강했다.

성남시의 태동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은 1971년 8월 10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6시간 동안 생존권을 요구하며 전개한 주민들의 시위로 1973년 성남시 승격과 분당 등 우리나라 1기 신도시 건설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하반기 강좌는 제1차 김정란 건국대 명예교수의 '푸른 수염', 제2차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의 '홍길동전과 인조반정' 등 12월 29일 매주 수요일까지 총 16회의 강좌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명칭을 8. 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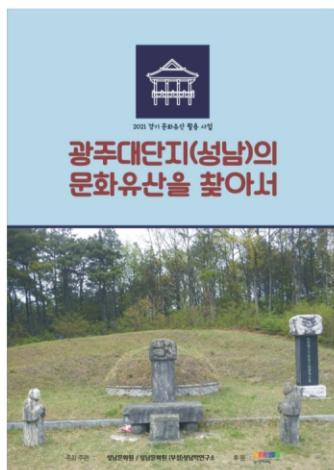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2021년 경기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성료

성남문화원은 상반기에 이어서 7월 28일(수) 하반기에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성남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특색강좌 ‘2021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를 진행했다.

‘2021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광주대단지 건설로 사라진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와 역사를 중심으로 기획했다. 7월 28일(수)에 최명숙 가천대학교 외래교수의 '봉국사와 명선 명혜, 명안공주'를 하반기 첫 강의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강의를 진행했다.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1969년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로 인해 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된 주민 5만 여명이 인간적 생활이 필요한 주거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등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성남문화원, 국가보훈처 문헌발간지원사업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의사단(義死團) 조사보고서〉 발간**

성남문화원(부설) 성남학연구소(소장 조남두)는 2021년도 국가보훈처 문헌발간지원사업으로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의사단(義死團)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6.25사변 때 공산군을 물리치려고 돌마면 주민 40명이 조직한 의사단(義死團) 활동과 성남지역의 6.25에 대한 증언과 광주 일대에서 피살된 민간인 희생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6.25사변이 터자 돌마면 주민 40명은 목숨을 바쳐 공산군을 물리치려고 의사단(義死團)을 조직했다. 그러나 기밀이 누설되어 경기 광주 쌍령리에서 26명, 돌마면 울리에서 1명, 피살 장소 미상 1명 등 28명이 희생되고 12명이 생존했다. 이 사실은 이매역 1번 출구 옆에 있는 〈殉名義士彰義碑(순명의사창의비)〉에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0년 11월에 돌마면 주민들이 건립한 의사단 추모비이다.

윤종준 상임연구위원의 조사 집필에 따르면 〈순명의사창의비〉에는 희생자 28명과 생존자 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동안 희생된 날짜와 거주지, 직업, 연령 등을 알 수 없다가 이번 조사를 통해 나이, 본적지와 거주지, 피살된 장소와 날짜, 직업 등을 파악하게 됐다. 또한 이 조사사업을 통해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 광주 일대(서울 강남구,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에서의 민간인 피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단원들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기 직전인 9월20일에 많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로나19와 생존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과정이 매우 어려웠고, 문헌기록도 성남지역에 특정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하여 생존자인 류지창 선생의 제자와 아들을 찾아 면담을 하였고, 故 류지창(오포 광명초교 교감 역임) 선생이 생전에 쓴 회고록을 통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회도서관에서 『6.25사변 중 피살자 명부』를 찾아 의사단원 및 그 외의 피살자 현황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로써 향후 추모사업 등의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성남문화원은 지난 6월 25일, 〈순명의사창의비〉 앞에서 처음으로 추모제를 개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모와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마면 의사단(義死團)은 현대사의 의병단체라고 할 수 있다.



단기 4354년 개천절 ‘제26회 도당굿 문화축제’ 온라인 개최

성남문화원은 단기 4354년 개천절 ‘제26회 도당굿 문화축제’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전녹화, 10월 3일(일)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송출했다.

행사는 1부 ‘대북 타고’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장),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축하공연, 김대진 원장의 ‘기념사’, 은수미 성남시장과 윤창근 성남시의회의장의 ‘축사’,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 위원이 개천절 소개와 개천절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도당굿 문화축제는 단군성조연합회 주관으로 ‘초혼제’, 경기소리사랑회의 ‘부채춤’, 경기도당굿 보존회 승경숙 이사장 외 4명이 ‘제석거리’, 오진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98호 전수조교의 ‘산거리’, 이향우 경기민요단 ‘비나리’, 굿보존회 최영주 외 회원들이 ‘대신거리, 성주거리, 창부거리’, 나채옥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04호 이수자와 회원들이 ‘상산거리’, 소리친구회의 민요 ‘풍년가와 방아타령’이 펼쳐졌다. 단군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얼을 되새기며,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고 성남시의 번영과 각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제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비대면 온라인 공연

성남문화원 주최, 성남시향토민속놀이 공연 두 번째 행사로 성남시향토문화제 제15호로 지정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공연이 방영기 보존회 이사장 총연출로 10월 28일(목) 둔촌사당에서 촬영 후 유튜브 채널 성남문화원으로 송출했다.

공연에는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우건식 성남시재향군인회장, 판교낙생농협 정재영 조합장 (문화원 선임 부원장), 엄갑용 문화예술과장,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 이삼영 하대원동장, 오복희 주민자치위원장, 정찬광 부위원장, 김종훈 분과장과 임원들, 이향우 성남국악지부장, 김복심 보존회장, 이상연 춤자이 예술단 사무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제24회 강정일당 상 수상자 이지수 여사 시상



성남문화원은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1986년),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1772~1832)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고자 제정한 '강정일당상'에 이지수(수호갤러리관장)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4회 수상자로 선정하여 10월 20일(수) 성남문화원에서 시상했다.

이지수 관장은 20년 전 성남시에 정착했고 평소 품위 있는 언행과 교육 속에서 큰 가르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효행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다. 이 관장의 부군은 장기간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료진료봉사를 하였으며,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증 장애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목욕봉사와 미술놀이 수업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것은 조부모의 봉사와 문화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생철학이 바탕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작가들과 한국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호나눔전시인 수호아트콘서트를 매회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시 관람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제30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개최



성남문화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창의력을 제고하는 기회를 주고자 '제30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했다. 이번 글짓기 대회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여류문사 강정일당을 추모하는 행사로 작품 공모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했다.

시상은 10월 20일(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총 수상자 62명중 대표자 25명을 시상식에서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 송산 조견 선생 추모〉 제21회 송산백일장 온라인 공모전 개최



성남문화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제21회 송산백일장'을 8월 22일 ~ 9월 10일까지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했다.

이번 백일장은 <송산할아버지>, <남한산성>, <추석명절>, <코로나19>를 주제로 초·중·일반부(산문, 운문) 200여명이 참가했다. 예심·본심 심사를 거쳐 우수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26일(화) 문화원에서 개최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성남교육지원청장 으뜸상 등 수상자 49명중 대표자 16명만 시상식에서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성남문화원 주관 〈마을큐레이터 되기 - 성남〉 수료식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성남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마을큐레이터 되기' 수료식이 11월 12일(금) 성남문화원에서 열렸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읽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여 '성남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성남문화원 윤종준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이민희 퍼실레이터의 '성남역사와 유래' 및 '우리 마을 제대로 읽기' 등의 강의와 수강생들의 자율적 워크숍을 통해 진행됐다.

수강생 하대원동 이점분 참여자 등 11명은 각자의 시선으로 성남을 읽고 말을 걸어보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참여, 참여자 전원 수료증을 받게 되어 뜻깊은 사업이 됐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즉 성남은 우리들이 만들어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기획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해주신 큐레이터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21 서가예찬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 추모 음원 '원운' 탄생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마련한 '2021 서가예찬 책을 노래하다' 사업에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을 추천해서 추모 음원 '원운'이 탄생됐다.

추모 음원 '원운'은 책속의 인물, 지역의 특색, 향토사 등의 지역콘텐츠를 연결, 재해석해 단순히 서가에 꽂혀있는 책이 아닌 노래로써 보다 접하기 쉽게 지역문화를 알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인 강정일당은 2005년 7월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고, 신사임당, 혀난설현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 여성인물로서 뛰어난 글 솜씨로 당시 남자들의 학문이었던 유교의 경전에 밝았고, 시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글씨는 해서(楷書)를 잘 썼으며 도가풍의 시 40여 편이 [정일당유고]에 전하고 있다.

음원은 유튜브 채널 '성남문화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강정일당 사당.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661번지

한국문화원연합회,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두묶음』 온라인 촬영〉

성남문화원이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는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 『두묶음』 공연이 11월 15일 성남문화원에서 촬영을 마치고, 11월 30일 유튜브 성남문화원에서 송출됐다.

성남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금빛 춤 사랑의 〈부채춤〉,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웃다리사물놀이〉, 벨칸토 콰이어의 〈고향의 봄, 얼굴, 청산에 살리라〉로 이어진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움직임과 소리의 향연을 펼쳤다. 지역의 문화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깊어가는 늦가을에 활기찬 우리 성남의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으로 비대면 온라인이지만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나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두묶음』-손으로 꾼는 공예

성남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는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프로그램' 『두묶음』 – 손으로 꾼는 공예(지승공예)를 9월 6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총 10회 강좌로 대면수업을 진행했다.



경기문화재단, 예술동호회 연계 활동 『기록하는 나의 예술』 온라인 촬영

성남문화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센터가 후원하는 2021 예술동호회 연계활동 '기록하는 나의 예술' 공연이 11월 16일(화) 성남문화원에서 녹화 촬영, 11월 30일(화) 유튜브 성남문화원으로 송출됐다.

이날 비대면 공연은 '벨칸토 콰이어'의 〈고향의 봄, 얼굴, 청산에 살리라〉, '금빛 춤 사랑'의 〈상사천리몽〉,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웃다리 사물놀이〉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제23회 경기도민속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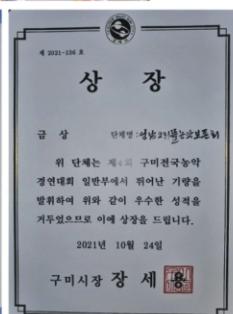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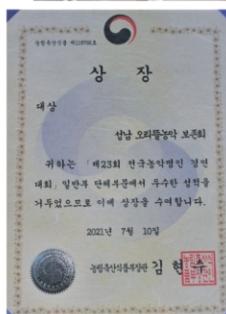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장려상 수상

11월 26일(금) 산성놀이마당에서 성남문화원은 제23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이사장 방영기)로 참가했다.

이날 심사장에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김성태 前성남예총 회장, 우건식 재향군인회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종권 성남시민포럼 상임대표, 엄갑용 문화예술과장, 이형복 성남농협 조합장, 조남두 성남학연구소장, 이군수 김태년 국회의원 사무국장, 최재원 윤영찬 국회의원 사무국장, 강승호 성남문화재단 문화국장 등 많은 지역 내빈들이 참석하여 출연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제23회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대진)가 주최하는 도내 31개 시·군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각 시·군을 순회하며 경연을 펼치며 순회 심사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12월 5일(일) 각 시·군 문화원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성남오리뜰농악' 제23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제4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회 금상 수상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6호 '성남오리뜰농악'이 7월 10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제23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일반부 단체부문에서 금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월 24일(일) 구미에서 열린 '제4회 구미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와 구미전국농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최고의 농악경연대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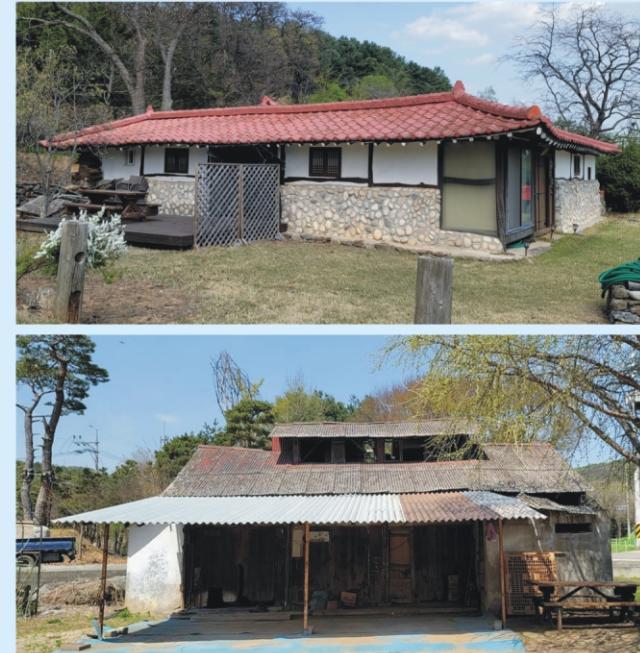
성남오리뜰농악보존회는 '제5회 원주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 '제5회 전국두레농악경연대회' 금상, 지난해 '제16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 수상하며, 2022년에 열리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성남시 금토동 전통가옥과 정미소〉 LH와 협력해 이전 보존하기로 결정

성남문화원이 성남시와 함께 수정구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내 철거 예정이었던 안동권씨 가옥(금토로62번길 3-8), 외동정미소와 나주임씨 가옥(둔토로 34)을 보존해달라는 청원에 성남시 문화예술과 엄갑용 과장, 김향미 시립박물관건축팀장, 정은란 학예사 등 직원들의 적극 행정 추진으로 LH와 공동으로 이전 복원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성남문화원은 이상호, 김선임 시의원, ABN 아름 방송과 함께 수차례 보존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근대 건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성남시는 「성남시 도시역사 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건축물에 대한 연혁조사 및 도면작업 등 기록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한 성남시는 개발주체인 LH에 보존 및 활용 방안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성남시와 LH 협의 결과 성남시는 내년 1월 건축물의 해체와 부재 수습을 진행하고 LH는 2024년 개발지구 내 문화공원에 이들 건축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도시개발과 역사의 보존 가치 공존 사례로 좋은 예시가 되었다."라고 전하였다. 성남시 또한 "금토동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풍요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씨대종회 〈사단법인 둔촌이집선생기념사업회〉 법인 설립 허가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둔촌 이집 선생의 후손인 '광주이씨대종회' 이옥재 도유사와 이결재 총무유사가 12월 16일(목) 성남문화원을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 윤종준 성남문화원(부설)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과 환담했다.

이 도유사는 12월 8일자로 '사단법인 둔촌이집선생기념사업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과 하대원동 둔촌 사당 진입로가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을 알렸다.

해마다 성남문화원과 광주이씨대종회는 '둔촌문화제', '둔촌중국백일장' 등 둔촌 이집 선생 현양사업에 함께 하고 있다.



김대진 원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선출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이 10월 20일(수)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3월 8일까지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23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제23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가 11월 22일(월)~24일(수) 강원도 삼척에서 지방 문화원 어워드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2022년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이지만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성남문화원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추석 미성품 전달

성남문화원은 9월 13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정진 사무국장, 윤종준 관장 등 직원들과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박숙자 파스칼 수녀 센터장에게 추석 미성품(농산물 꾸러미 등)을 전달했다.



판교동 경로당에 추석맞이 미성품 전달

성남문화원은 9월 9일(목) 판교경로당을 방문,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미성품 50박스를 김문수 경로당회장에게 전달했다.

판교낙생농협, 상생나눔 성남문화원에 노트북 기증

판교낙생농협(정재영 조합장, 성남문화원 선임부원장)은 성남문화원의 문화교육에 필요한 상생나눔 노트북을 기증했다.

정 조합장은 “선진복지 판교낙생농협을 실현해 나가는데 전 임직원이 원팀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산이씨 韓平君 家門史 출판기념회 참석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11월 27일(토) 수내동 한산이씨 한평군파 종회, 봉화군파종회가 개최한 한산이씨 한평군韓平君 (李之蔚) 가문사 家門史 출판기념회에 연안이씨 후손인 이형복 부원장(성남농협 조합장)과 함께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시의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방문

10월 20일(수)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이 ‘강정일당상’ 시상식 축하차 성남문화원을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환담했다.



제28대 김학봉 신임 수정구청장 방문

제28대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 취임한 김학봉 구청장이 성남 문화융성의 중심인 성남문화원 신임 인사차 방문하여 김대진 원장과 환담했다.

방영기 명창 소리인생 51주년 기념 '우리소리를 찾아서' 신명나는 무대 성료

(사)선소리산타랑보존회 성남시지부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원이 후원한 '2021 우리소리를 찾아서' 공연이
12월 5일(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홍연화 명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서 열려

성남시 주최, 성남 공예명장과 함께하는 첫 번째 콘서트로, 12월 3일(금) 홍연화
성남시 공예명장 1호의 지승 분야 강연과 보타이 제작 등 체험을 했다.

박용준 감사,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23주년 연주회

창단 23주년을 맞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감독 겸 상임지휘자 박용준)가 비대면
무관객 공연 촬영을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8월 22일(일) '2021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11월 13일(토) '2021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 가을 음악회'는 유튜브채널<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한국문화원연합 2021 대한민국문화원상 박용준 감사 지역문화 창달분야 우수상 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문화원상 지역문화창달' 우수상 수상자에 박용준 성남청소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성남문화원 감사)가 선정, 10월 8일(금) '지방문화원의 날' 수상했다.



제48회 성남시민의 날 홍연화 감사, 성남시 모범시민상 수상

10월 8일(금) 제48회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홍연화(성남시 공예명장 1호, 성남
문화원 감사)명장이 '성남시 모범시민상'(여성복지 부문)을 수상했다.



제29회 성남시 문화상 서철수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 학술부문 수상

성남문화원(부설)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인 서철수 前신구대학교 교수가
성남문화원 추천으로 제29회 성남시문화상 학술부문을 10월 8일(금)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21 지방문화원 어워드 이경식 특별회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이경식 단군성조연합회장(성남문화원 특별회원)이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1년도 지방문화원 어워드 경기
도지사 표창 수상자로 11월 24일(수) 제23회 경기도문화기족합동연수에서 시상했다.



성남문화원 고옥수 이사, 이교자 관리원 성남시장 표창

성남문화원은 12월 27일(월) '2021 3차 이사회'를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유공 임직원 표창'을 전수했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옥수 이사와
다년간 청사 내 세심히 관리한 이교자 관리원이 수상했다.

성남문화의집 - 온라인 강좌

노래교실

매주 새로운 곡으로 수강생들을 맞이하는 노래교실 이향숙 강사의 선곡 센스가 대단하다. 곡의 포인트 부분을 콕 집어 알려주어 최신가요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흥이 넘치는 수강생들이 가득한 노래교실 풍경이 기대되는 수업이다.



청소년 사물놀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 사물놀이는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집에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강의로, 북, 장구, 징, 팽과리를 다루는 방법부터 다양한 장단까지 배울 수 있으며 4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며 알려주어 지루할 틈이 없는 강좌이다.



성남문화의집 - 오프라인(대면) 강좌

식탁위의 동의보감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젊은 주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식탁위의 동의보감 수업은 처음엔 요리 강습 프로그램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수강생들도 있지만 음식의 조화, 약재의 사용법, 꽂차와 한방차를 만드는 방법 등 실제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난타

(매주 수요일 오후2시~4시)

서상능 강사의 구령에 맞춰 따라하는 수강생들 얼굴에는 의욕이 가득하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이 끝나면 꽉 쥐었던 북채의 자국이 손바닥에 붉게 남아있다.

난타반은 초보 수강생들로 이루어졌으며, 수강생들이 입을 모아 새로운 취미와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생겼다며 수업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성남문화원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